

샤르트르의 행동의 존재론적 구조

양 영 응*

목 차

- I. 서 론
- II. 행동의 지향성
- III. 행동의 동인과 목적
- IV. 행동 자유 상황
- V. 결 론

I. 서 론

어떠한 인간적 행동도 <세계-안의-인간>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 세계 및 그 들을 연결하는 관계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는 언제나 행동함으로써만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샤르트르는 행동의 존재론적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인간 현실(인간-세계)>의 해명을 시도한다.

그러나 행동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이 탐구를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 탐구라는 행동 그 자체가 마침 우리가 바라는 행동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내가 그 인간인데, 바로 이 인간을 만일 내가 이 세계에서 이 순간의 모습 그대로 파악한다면, 나는 이 인간이 하나의 물음의 태도로서 존재 앞에서 있음을 인정한다.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를 나에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행동이 있는 것일까? 하고 내가 묻는 바로 그 순간 나는 하나의 물음을 세워놓는 것이다. 이 물음을 나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고찰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물음은 뜻이 주어진 인간의 태도이다.

어떠한 물음의 경우에도 우리들은 우리가 묻고 있는 존재와 대면하여 서 있다. 그런데 물음을 받은 존재를 향하여 우리가 묻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하여서이다. 내가 그것에 관하여 존재에게 묻는 이 무엇인가는 의식의 지향성에 관계한다. — 이것을 그는 홉서얼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지만

*인문대학 사학과(Dept. of History,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 이리하여 사르트르는 모든 행동은 의식적이며, 모든 의식적 행동은 지향적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그가 설혹 의식의 지향적 이론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홉서얼의 선험주의 및 내재론을 거부한다. 사르트르의 경우 지향적 대상은 원칙적으로 의식 밖에 있는 것, 곧 초월적인 것이다. 그에게는 심리적 행동이 의식된 행동이라는 것과 그리고 의식이 이런 행동에 있어서 한번도 대상화되어지지 않은 또는 가정되지도 않은 어떤 것을 진술한다는 점을 드러내어 보이는 일이 문제이다. 예를 들자면 내가 만족함을 느끼거나 책상을 본다는 것에 관하여 갖고 있는 의식은 내가 만족을 느끼고 이 책상을 본다는 사실과 구별될 수 없다고 사르트르는 주장한다.²⁾ 따라서 의식은 행동 자체에 속하는 것이고, 의식이 자기 자신과 대상을 정립한다는 의미에서는 정립적 의식임과 동시에 그 자체에 관한 비정립적인 의식이다. 의식은 어떤 대상도 아니며 또한 자기의식의 행동에 있어서 대상으로 변전될 수도 없다. 이제 의식은 데카르트적인 자아라는 의미로 대상화되지 않는다. 「의식은 자신 안에 실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것이 나타나는 한에 있어서만 존재한다는 뜻에서 순수 현상이다.」³⁾라고 사르트르는 말한다.

의식이 무엇인가에 관한 의식이라 함은, 의식이 의식이 아닌 하나의 존재이며, 또 의식이 그것을 드러내 보일때에는 이미 존재하는 물건으로서 주어져 있는, 그러한 하나의 존재의 드러내 보임— 드러내보여짐 (révélation-révéleé) — 으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는 것이다. 즉 의식이란 그것의 존재가 본질을 세우는 그러한 하나의 존재이며, 다시 말하면 그 현상이 존재를 요구하는 그러한 하나의 존재의 의식이라는 뜻이다. 사르트르의 표현을 따르다면, 의식은 하나의 존재 그것에 있어서 그 존재가 그것과는 별개의 하나의 존재를 내포하는 한에 있어서 그 존재에 있어서 그 존재가 문제인 그러한 하나의 존재이다. 의식에 있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의 초현상적 존재는 그 자신 그 자체 안에서 (en soi) 존재한다.⁴⁾

그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영원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자체 동일성일 뿐이다. 이와 같

1) 상상력에 대한 논문에서 사르트르는 심리학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철학에 있어서의 하나의 큰 사건으로서 홉서얼의 「이념」에 감사한다. 홉서얼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고, 우리는 이제부터 종래의 모든 심리학적 문헌을 집어던지고 표상(그의 용어로는 오히려 심상)의 지향적 구조의 직관적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 전적으로 새로이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우선 그는 홉서얼로부터 ① 의식은 특별한 사물(인상, 표상, 심상)을 포함하고 있는 저장소가 아니며, ② 의식은 독특한 것이고, 어떠한 자연적 유추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없고, ③ 지향성이 의식의 근본 성격을 보여준다는 것을 홉서얼에게서 배웠다.

Jean Paul Sartre, "L'Imagination : Psychologie Phénoménologique de L'Imagination" Paris, 1940. English trans. F. Williams, "Imagination : A Psychological critiqu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2, p. 127~133, Fritz Heinemann저, Existenzphilosophie Lebendig oder Tot?, 황문수 역 「실존철학」, 문예출판사, 1986, p. 162

2) Edo Pivcevic저, Von Husserl zu Sartre 이영호 역, 「홉서얼에서 사르트르에게로」, 지학사, 1985, p. 169

3) J. P. Sartre저, L'être et le Néant; Essai d'ontologie Phénoménologique, Gallimard, 1943 : dt. in bers; Das Sein und Das Nichts, Rowohlt Verlag GmbH, Hamburg, 1975, s. 23. 다음부터 S. U. N. 로 쓴다.

4) S. U. N., s. 29~30

은 자체 동일성으로 존재하는 존재를 샤르트르는 즉자존재(être-en-soi)라고 부른다. 의식은 다만 이러한 즉자존재를 의식하는 이외에 이 즉자존재와 별개로 병존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의식의 가능적 대상이고, 의식은 즉자존재의 의식으로 존재하는 이외에 별다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의식은 존재가 아니라 차라리 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의식의 존재방식을 무라고 했을때, 그것은 존재와 대립되는 또 하나의 규정으로서의 비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존재 규정을 갖고 있지 않고 어떠한 존재방식으로도 자체 동일성을 보유하기를 거부한다는 뜻에서 무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의식은 공무(rien)가 아니라 존재를 드러낸다는 뜻에서 엄연히 실재성을 가지기 때문에 즉자존재와 동일한 뜻에서 존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바로 이 후자와 대면하고 있다는 뜻에서 대자존재(être-pour-soi)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면, 의식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와 관계함으로써, 즉 존재자를 어떤 존재자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존재는 언제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부터 빌려온 것이요, 그러한 한에 있어서 언제나 빌려온 존재를 자기의 존재와 동일시하기를 거부한다. 그에게 어떠한 존재 규정이 주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의식은 이를 부정·초월해 버린다. 의식은 언제나 존재의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의 존재방식은 존재에 대한 의식의 태도 양식일 수밖에 없다.⁵⁾

의식이 존재의 의식일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자체 존재의 방식을 통해서 존재에 관여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의식이 필연적으로 존재의 의식이어야 한다면, 의식은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의 방식으로밖에 존재의 의식일 수 없을 것이다. 즉 의식은 신체의 방식으로 존재와 관계하고 반드시 신체의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의식의 사실성 또는 사실적인 필연성이다. 이와 같이, 샤르트르는 의식과 신체의 존재방식에 착안하여 양자가 존재 연관 속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했다. 사실, 시각의 양식으로 존재하는 의식은 눈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망원경이나 지팡이나 보청이기를 사용하듯 눈이나 귀나 손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보고 듣고 감촉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만져 볼 때 나의 눈이나 귀나 손은 바로 나의 눈이요 나의 귀이며 나의 손이다. 즉 나의 신체요 곧 나의 의식이며 결국 나 자신이다. 샤르트르에 있어서는, 의식과 동일시되는 신체는 의식의 신체성이요 신체와 동일시되는 의식은 신체의 의식성이다. 이리 하여, 그는 의식과 신체를 존재의 차원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의식·감각·지각·정서·상상력·사고·행동을 동일한 인간 존재의 서로 다른 존재 선택 내지는 존재방식으로 보고 그들 사이에 하등의 존재론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는 것은 의식한다는 것이며, 의식한다는 것은 사고한다는 것이다. 사고하면서 의식한다는 것은 적어도 인간에게 있어서는 신체의 방식으로 감각한다는 것을 뜻한다. 감각한다는 것은 이미 의식 작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각 활동이다. 인간의 행동은 <세계 내 존재적 도구의 형식으로 세계와 관여함>이며, 따라서 행동은 신체를 매개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5) 신오현, 「자유와 비극-샤르트르의 인간 존재론」, 문학과 지성사, p. 123~126, 참조.

그리고 행동은 언제나 의도적 행동이지 단순한 신체의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사고나 인식 활동으로부터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⁶⁾ 그러므로 「인간 존재에 있어서는, 존재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며, 행동하기를 그침은 곧 존재하기를 그침과 같다.」⁷⁾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이 행동의 존재론적 구조를 분석할 단계에 이른 것 같다. 도대체 행동함이란 어떠한 것일까? 대자가 행동함이란 무엇 때문일까? 대자는 어떻게 해서 행동할 수가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는 지향성, 행동의 동기, 목적의 관계 및 행동·자유, 상황의 개념을 통해서 본론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II. 행동의 지향성

샤르트르에 있어서 의식을 가진 인간의 의식적 경험과 행동은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성이야말로 의식 현상을 물질적 성격의 현상과 전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이 특성이 곧 지향성(Intentionalität)이다. 그러면 의식활동이나 그 과정이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홉서얼에 있어서의 지향성은 상상에 있어서의 대상의 단순한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샤르트르는 즉시 지향성을 그 나름대로 해석한다. 지향적 대상은 그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식의 밖에 있는 것, 곧 초월적인 것이다. 홉서얼은 초월적인 것 및 절대적 존재의 단순한 현상의 존재를 강조하지만 샤르트르는 모든 종류의 내재론에 반대한다. 이러한 초월은 이제부터는 〈밖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그는 「코기토(cogito, 사유)의 중요한 의미는 본질적으로 자기 외부와 관계하는 것」⁸⁾이라고 하여 지시 또는 관계를 지향성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

샤르트르가 관계성을 지닌 의식의 본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은 지향적 대상이 의식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단지 현존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하는 대상을 인식할 수 있으며, 존재하지 않은 대상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존재할 가능성이 있거나,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대상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샤르트르는 우선 그 무엇과 관계한다거나, 어떤 대상을 가진다는 뜻으로 인간의 의식을 지향적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의도는 지향적 성격을 지니지 않는, 다시 말해서 그 무엇과도 관계를 맺지 않는 물질적 대상이나 사물들과 의식을 대조시키기 위한 것이다 자기 외부의 그 무엇과도 관계를 맺지 않는 그 속성을 갖고 있다는 뜻에서도 사물이나 물질적 대상을 표현할 때 샤르트르는 즉자(en-soi) 혹은 즉자존재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다른 한편, 〈의식〉(대자)는 언제나 「즉자의 무화를 통하지 아니

6) ibid, p. 170~171, 참조.

7) S. U. N. S. 604

8) S. U. N. S. 139

하고서는 자신을 근거지울 수가 없는 결핍의 존재이다。」⁹⁾ 의식은 오직 그 무엇에 대한 의식이라는 형식으로 존재할 뿐이다.¹⁰⁾ 또 나의 현재의 의식 속에 지향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깥 쪽으로, 세계의 쪽으로 향하고 있다¹¹⁾고 주장한다. 이러하다면, 우리에게 대해서 존재하는 바 세계는 의식에서 유래하는 의미, 그것도 반성이 일어나기 전에 유래하는 의미에 비추어 조직된 만큼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의식에 속하는 구조와 같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세계는 이를테면 지향적 구조¹²⁾를 가진다고 하겠다. 즉 세계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의식의 지향성이 구성한 나의 세계이다.

샤르트르가 의식 또는 대자를 일종의 관계로 보고 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그의 말에서도 밝혀진다. 즉 「대자는 현재 자기가 있는 바를 즉자를 통하여 자기에게 알려준다. 말하자면 이러한 인식은 대자가 그 자신의 존재 속에서 존재와 관계한다는 데서 비롯된다.」¹³⁾ 그러면 샤르트르가 의식을 단순히 인간의 특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의식은 일종의 관계, 그것도 다른 아닌 내적인 관계라고 주장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은 모든 의식이 어떤 특수한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존재하는 존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의식이 자신의 대상에 대해 차별을 둔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대상이 본질적으로 의식의 특수한 활동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샤르트르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의식적이며, 동일한 의미에서 지향적이다. 「행동이란 필연적인 전제 조건으로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의 인식, 다시 말하면 대상적 결핍의 인식, 아니면 하나의 부정(negativité)의 인식을 내포한다.」¹⁴⁾고 샤르트르는 말한다. 그리하여 가령 「부주의한 깃연가가 실수하여 화약고를 폭발시켰다고 해서 그가 행동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와 반대로 채석장을 폭파 할 임무를 띤 노동자가 주어진 명령에 따라서 예정한 폭파를 일으켰을 때 그는 행동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그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혹은 바꾸어 말하면, 그는 하나의 의식적인 기도를 지향적으로 실현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행동의 결과를 모조리 예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 우리가 행동에 관해서 이야기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결과가 의도에

9) ibid.

10) P. S Morris저 "Sartre's Concept of a Person : An Analytic Approach" Univ. of Mass. Press Amherst, 1975, p. 13. 박만준 역, 「의식과 신체」 서광사, 1993, p. 31

11) S. U. N., s. 18

12) <지향적 구조>란 의도에 의해서 구성된 의미연관성의 구조를 뜻한다. 현상학에 의하면 우리의 인식은 언제나 의도 또는 존재기도이며 존재기도는 존재가능성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즉 지향이나 의향, 의지나 의도가 뜻을 세우고 이루는 경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향성은 언제나 일정한 구조를 가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세계>이기 때문에 세계는 물리적 구조에 대비되는 지향성의 구조 또는 지향적 구조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다. Arthur C. Danto 저, Jean-Paul Sartre, William Collins Sons & Co. Ltd., London, 1975 : dt., übers. Steidl verlag, Göttingen, 1986, s. 92. 신오현 역, 「샤르트르의 철학」, 민음사, 1985, p. 119

13) S. U. N., s. 292

14) S. U. N., s. 552

대응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¹⁵⁾ 라고 하여 사르트르는 의식적 행동을 지향적인 것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사르트르가 의식적 행동을 지향적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대상과의 관계에서의 의식적 행동은 <결핍>이라는 것을 의미 할 뿐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태를 그 자신의 대상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 하다면, 행동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해서 대자가 행하는 기도이며, 모든 행동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일이며, 그리고 모든 목적은 지향적이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오로지 두 가지 유형의 존재만이 있다. 그 하나는 세계안에 있는 사물이라고 하는 존재 유형이며 또 하나는 의식이라는 실존의 유형들이다.」¹⁶⁾ 이 중에서 인간의 의식만이 가변적인 목적을 상상할 수 있으며, 그것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인간 존재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궁극적 목적과 같은 것을 있을 수 없다. 이리하여 사르트르에 있어서 지향은 행동이며, 이미 기획이며, 무엇에 관한 순수한 의식이며,¹⁷⁾ 아직은 있지 아니한 바 목적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Ⅲ. 행동의 동기 · 목적

앞에서 우리는, 행동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해서 대자가 행하는 기도이며, 모든 행동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일이며, 그리고 모든 목적은 지향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행동은 그것의 조건으로서 하나의 대상적 결여의 인식 혹은 부정적인 것의 인식을 필연적으로 내포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행동의 이 조건은 아직도 실현되어 있지 아니한 하나의 가능이라고하는 그 본질적인 특징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날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행동을 결의하자 말자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충실한 존재의 세계에서 물러나 결연히 비존재의 영역으로 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¹⁸⁾ 그러나 만약 우리가 존재하는 자를 어디까지나 그 존재에 있어서만 생각한다면, 의식은 언제나 존재로부터 존재에로 지향되고, 따라서 비존재를 발견하기 위한 행동의 <동기>(Anlaß)를 하나도 존재 안에 발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행동은 그것이 존재하는 자를 지향하지 아니하고 존재하지 않는 자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일반적인 견해에서 처럼 어떤 상황의 가혹함이 행동의 동기가 되어 새로운 상태가 구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상태가 닥쳐 올 수 있음은 「우리의 생각이 다른 상태에 미칠 수 있었던 그때부터 출발하여 비로소 하나의 새로운 빛(목적)이 우리의 고통이나 고뇌 위에 떨어지고, 그리하여 그 모든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결정하는

15) S. U. N, s. 552

16) Sartre, "Imagination, A Psychological. critique", English trans. F. Willianns(Ann Arbor : Univ. of Michigan Press, 1962), p. 116

17) S. U. N, s. 430

18) S. U. N, s. 553

것」¹⁹⁾이기 때문에 여하한 고통도 그것만으로는 그의 행동의 〈동인〉(Antrieb)이 될 수 없다고 샤르트르는 주장한다.

오히려 그 고통이 견딜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가 그것을 바꿀려고 〈기도〉(Plan)했을 때부터이다. 즉 그 고통에서 거리를 두고 이중의 무화를 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한편에서는 이상적인 상태를 현재적인 단순한 무로서 정립해야 하며 또 한편에서는 이 이상적인 상태에 대해서 현실의 상태를 무로서 정립함이 필요하다²⁰⁾고 하여, 어떠한 사실적인 상태도 결코 그것만으로서 어떠한 행동을 동기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어떠한 사실적인 상태도 의식으로 하여금 그 사실적인 상태를 부성 또는 결여로서 인식하도록 결심시킬 수는 없다고 샤르트르는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식이 세계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의 능력이라고 하는 한 또 무화가 없고서는 행동의 목적 정립 또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행동에 없어서는 안될 기초적 조건은 행동하는 의식의 무화의 작용이라는 것을 승인해야만 할 것이다. 샤르트르는 이 무화의 작용을 행동하는 의식의 자유 혹은 대자의 자유라고 부른다.

여기서 샤르트르는 행동의 앞서는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 결의가 행해지는 사례들을 찾는데 열중한 결정론자들과 무차별적인 자유의 지지자들의 결함을 지적한다. 〈동기가 없는 행동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론자들의 주장을 샤르트르도 인정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모든 목적은 지향적이며, 모든 행동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일이며, 그 목적이 이번에는 하나의 동기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것이 세 개의 시간적인 〈탈자〉(EK-stasen)의 통일이다. 목적 즉 나의 미래의 시간화는 하나의 동기(또는 동인)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미래의 시간화는 과거 쪽을 가리켜 보인다. 그리고 현재는 행동의 출현이라고 한다면 동기없는 행동에 관하여 운운함은 모든 행동에 포함된 지향적 구조가 결해있는 그러한 행동에 관하여 말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동기-지향-행동-목적〉이라는 복잡한 조직의 저 쪽에 있다고 샤르트르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동기(또는 동인)가 어떻게 해서 동기(또는 동인)로서 구성되는지를 문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확실히 동기가 동기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동기로서 체험되어야 한다. 과연 그렇다고 해서, 결코 사례의 경우에서 처럼 동기가 주제적으로 사고되고 표명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이것은 대자가 동기 또는 동인에 대해서 동기 또는 동인으로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이다.²¹⁾

이리하여 샤르트르는 「동인은 목적에 의해서 밖에는, 다시 말하면 비존재자에 의해서 밖에는 이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인은 그 자신에 있어서 하나의 부성(Negiertheit)이다」²²⁾라고 하여 내가 현재의 상황에서 달아나 한낱 나의 가능성쪽으로 향해서 이 상황을 무화함으로써만이 이

19) idid. s. 554

20) idid. s. 555~556

21) idid. s. 556

22) idid.

상황은 동기됨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하다면, 확실히 동기 없는 행동을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하다고 해서 동기가 행동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동기는 행동의 한부분, 생각컨대, 어떤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결단의 기도 그 자체가 행동이기 때문에 동기도 목적도 행동의 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행동의 동기와 동인 그리고 목적의 개념을 좀 더 분명히 밝힐 단계에 이르른 것 같다.

동기는 보통 어떤 행도의 이유로서 파악되고 있다는 것, 즉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고려의 총체라는 점, 따라서 동기의 특징은 상황의 대상적 평가라는 점에 있는 것이다. 단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미 하나의 목적이 전제되어 있는 한에 있어서만 또 이 목적을 향해서 대자가 향하는 기도의 한에 있어서만 이 대상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동인은 보통 주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즉 나를 강요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욕망·감정·정서 등의 총체이다. 그런데 동기도 동인도 다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상적 경우에서의 양자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자.

우리는 이 양자를 비교함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의 결정이 행해질 때의 제각기의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물음에 대하여 샤르트르는 결국 의지와 정념과의 사이에 <갈등>(Konflikt)²³⁾이 존재함을 별도의 형식에서 정립함에 의해서 답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확실히 동기는 대상적이며, 그것은 현재의 의식에 나타나는 그대로의 사물의 상태이다. 그러나 사물의 이러한 상태가 나타날 수 있음은 자기를 어떤 방식에서 선택하는 대자에 대해서만 그러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칼은 대상적으로는 칼날과 손잡이로 되어 있는 하나의 용구이며, 단순히 물건을 베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용구로, 가령 망치의 대용품으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칼이 물건을 베는 용구로서의 의미를 특히 가지고 있음은 내가 물건을 베려고 기도하기 때문이다. 즉 내가 현재의 상황을 향해서, 즉 무를 향해서 초월할 때만 도구적 특징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²⁴⁾고 하여 동기가 행동을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기는 어떤 행동을 기도함을 통해서만 분명해진다고 샤르트르는 쓰고 있다. 그리고 또 그는 이러한 도구적 연관이 세계 전체 속에서 하나의 동기를 동기로서 취하는 의식은 그 이전에 나에게 고유한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대자가 그것을 통해서 세계의 안에서 행동의 동기를 출현시키는 바 그러한 내적 구조는 언어의 역사적 의미에서의 하나의 비합리적 사실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구조로서의 제 일차적 기도가 곧 동기이다²⁵⁾라고 대답한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행동의 동기와 동인과 목적의 상호 관계를 밝힐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세계-내-존재>의 하나의 특수한 경우이다. 세계를 존재시키는 것은 대자의 실존이기는 하나 그러나 또한, 목적을 향해서 대자의 기도 그 자체가 세계의 일정한 대상적 구조를 존재하게 한다. 그리고 이 목적의 빛에 조

23) idid. s. 569

24) idid. s. 569

25) idid. s. 570

명되어서 이 대상적 구조가 동기로 된다. 그때 대자는 이 동기의 의식이 된다. 이와 같은 반성적 의식도 본래 목적을 향해서 대자의 기도로서 직접적인 자기의식이다. 이 의미로서 그것은 동인이다²⁶⁾. 그리하여 샤르트르는 「동기와 동인은 상관적이다. 동기와 동인과 목적은 자유롭고 살아있는 의식의 실존에 기초지워진 셋의 뿔 수 없는 모습이다.」²⁷⁾고 말하는 것인데 이는 과거화된 동기와 동인, 현재의 동기와 동인 그리고 미래의 목적등이 하나의 분리될 수 없는 통일체로 조직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것들을 넘어서 존재하는 의식의 실존 그 자체에 의해서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샤르트르는 비 의지적 자발성과 의지적 행동을 구별할 것을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다.

샤르트르에 의하면, 비 의지적 자발성은 행동의 기도 그 자체를 통해서 전혀 무반성적으로 동기를 의식하지만, 그러나 의지적 행동은 이와는 반대로, 그 구조상 동인도 어떤 방식에서 대상으로서 지향하려는 반성적 의식이 나타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성적 의식이 스스로 목적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미 주어진 목적의 실현방법에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적 반성이 가령 스스로 목적을 세워 그것을 실현할 것을 이상으로 한다 해도 그것은 원리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하다는 것도 의지적 행동은 그 기초로서 언제나 하나의 더욱 근본적인 기도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물음은 우리로 하여금 의지보다는 더욱 근본적인 하나의 자유에로 향하게 한다.

IV. 행동 · 자유 · 상황

확실히 우리의 행동은 가령 그것이 아무리 사사로운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더욱 근본적인 기도를 기초로한다는 의미에서 전적으로 자유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든가 더군다나 예견할 수조차 없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우리의 행동이 세계의 상태에서도 또 이미 정해진 과거의 전체에서도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면 무상의 행동—동기. 없는 행동²⁸⁾이라는 사고 방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을 좀 더 검토해 보자.

사실 자유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선택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고 의식될 때 비로서 그 선택은 자유라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샤르트르가 그의 저서들

26) idid. s. 571

27) idid. s. 572

28) 무상·무상성(gratuité)의 개념은 샤르트르에 있어서는, 그의 작품 「구토」속에서 주인공 앙뜨완느르 캉팽이 부딪치는 이 세계의 무 근거성과 부조리에 대한 의식을 뜻하며 따라서 인간의 이 세계에서 생존이란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인간의 처지를 샤르트르는 무상성으로 표현한다. 까뮈의 경우에서의 부조리(Absurde)가 여기에 상응한다. (J. P. Sartre, L'Existentialisme est unhumanisme, 1946., 황문수, 이문호 공역, 「세계 사상 대 전집」, 권30, 1978, p. 374.) 또 S. U. N. s. 576

의 여러곳에서 들고 있는 예를 통해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가령 내가 친구와 같이 등산한다고 하자. 몇 시간 걷고 난 후에 나의 피로가 겹쳐서 드디어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이른다. 나도 한번은 저항해 보나 돌연히 포기해서 피로에 굴복하여 배낭을 길바닥에 내던지고 넘어지듯이 주저 않는다. 친구들은 나의 행동을 비난할 것이다. 그리하여 바로 이로 인해서 그들은 내가 자유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누구도 또 아무 것도 나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이 나는 나의 피로를 참고 친구들과 같이 행동하며 숙영지에서 쉴 때까지 나갈 수 있다고 말할 것이고 나는 내가 매우 피로해 있었다고 변명할 것이다.»²⁹⁾ 여기서 사르트르는 우선 이론적 검토에 의해서 답하고 있다. 그는 「내가 달리 행동할 수 있었음이 가능함은 자신의 신체를 실존시키는 방식에 불과하다. 피로는 나의 의식의 〈사실성〉(Geworfenheit) 그 자체였으며 그것만으로는 나의 행동을 결정할 수는 없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피로 자체가 아니라 피로에 대한 반성의 방식」³⁰⁾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반성적 의식이 나의 피로를 지향해서 이것을 체험하며 거기에 하나의 가치와 나 자신에 대한 하나의 실천적 관계를 부여하는 데서 비로소 피로가 견딜 수 있는 혹은 견딜 수 없는 것으로서 느껴짐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나의 친구들도 거의 나처럼 피로해 있었을 것인데 나와는 다른 모양으로 그 피로를 받아들였음은 왜 일까? 그것은 자기가 자기의 사실성 및 세계와의 근원적 관계를 어떻게 선택하는가의 차이에 의함인 것이다. 즉 자신의 신체나 세계의 상태에 대하여 신뢰로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신을 품고 있는가의 차이에 의함인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것은 각자의 대자의 〈세계-내-존재〉 그 자신의 차이로 귀착될 것이다. 이리하여 사르트르는 나는 언제나 세계 전체 안에서 자기를 전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바 〈세계-내-존재〉이다³¹⁾라고 주장한다. 사실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도 선택의 구조 안에는 필연적으로 〈그것이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선택이다〉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령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출발해서의 선택〉이라든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반대되는 선택〉 따위의 선택은 결국은 아무것에 관한 선택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계에 관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사실 세계의 여러 사물들은 그것만으로는 우리들에 대하여 어떠한 장애도 아니며 도움도 아니다. 다만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할 때에만 그 사물은 장애가 된다든지, 도움이 된다든지 일 것이다. 예컨대 눈 앞에 있는 큰 바위는 이것을 움직일려고 목적을 세울 때에는 대단한 장애이지만, 거기에 올라서 경치를 불려고 할 때에는 자기의 목적로서는 매우 좋은 도움이다. 이것으로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의 사물이 우리들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일정한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목적이라는 것을 자세히 말하면 아직도 현실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즉 현재 그렇게 있는 상태와는 다른 다가오는 상태가 목적이다. 사르트르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행동의 목적을 세운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

29) S. U. N. s. 576

30) idid. s. 577

31) idid. s. 580

를 부정해서 미래의 상태를 계획하는 것」³²⁾이다. 이것은 인간은 언제나 자기를 초월하는 동시에 세계를 초월해감으로써 자각적, 주체적 존재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내-존재>로서 자기를 자각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목적이며, 이 목적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유이기에 자유의 만나임의 장애와 제한을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들의 자유이다. 라고 샤르트르는 선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자유라는 것>의 가능성과 <자유가 아닌 것>의 가능성이 다같이 우리 앞에 주어져 그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들의 자유라 한다면 자유에 앞서는 자유가 필요하고 그리하여 무한히 소급될 것이다. 사실 인간이 목적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이다라는 자기 자신의 본성은 우리들로서는 <주어진 것>³³⁾인 것이다. 그리하여 샤르트르는 「실존주의와 휴머니즘」의 강연에서는 「인간은 자유의 선고를 받은 자」³⁴⁾라고 하고, 또 「존재와 무」에서는 「인간은 자유로 선택하는 자이는 하나 자기가 자유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³⁵⁾고 단호히 말한다. 이와 같이 자유로운 대자존재가 자유가 아님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샤르트르는 자유의 <사실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유라는 이 사실은 그 이상 이유를 붙일 수 없는 근원적인 사실이라는 뜻에서 자유의 <우연성>이라고 부른다.³⁶⁾ 그리고 즉자존재와 나의 의식이 대면하는 공간이 세계이며, 이 세계에 있어서 여러 존재에 둘러 싸여서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대자의 존재방식을 <상황>³⁷⁾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면 나의 상황은 주관적인 것만도 객관적인 것만도 아닌 즉자존재와 대자존재의 관계이다. 나의 세계와 나의 상황 중에 어디까지가 즉자존재의 영역인지 또 어디까지가 나의 주체성 즉 대자존재가 기여한 것인지 양자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³⁸⁾ <주어진 것>이 이러한 사물로서 우리들에게 대해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들이 자유로 이 목적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즉 대자의 무화라는 존재방식이 그 자신으로서는 무의미한 즉자를 일정한 목적의 빛에 비추어서 여러 모습으로 관계시킴, 의미 줌, 질서주고 있음이 상황이다.

그러면 인간을 만든다 라고 흔히 말해지는 여러 사실— 예컨대, 기후, 풍토, 인종, 계급, 언어 등—은 어떻게 설명되는 것일까. 샤르트르에 의하면 결정론자들은 인간을 규정하는 여러 사실을 지적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사물의 <역행물>(Feindseligkeitskoeffizient)³⁹⁾은 자유를 반론하고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러하다는 것도 「이 역행물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

32) S. U. N. s. 572

33) <주어진 것>(Gegebne)은 하이데거의 <던져진 것>에 대응하는 의미로서 보아도 되겠다. 샤르트르의 <사실성>도 Faktizität (Geworfenheit) 이고, 하이데거의 <피루성도> Geworfenheit이다. 그리고 샤르트르는 이 <주어진 것>과 <사실성>을 거의 같은 뜻으로 쓰고 있다.

34) J. P. Sartre 저, 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 (방근 역, 「노벨 문학전집 7」 신구문화사, 1972), p. 372.

35) S. U. N. s. 614

36) ibid.

37) ibid. 618

38) 신오현, 「자유와 비극: 샤르트르의 인간존재론」, 문학과 지성사, 1983, p. 194.

39) S. U. N. s. 610

자신에 의해서이고, 달리 말하면 하나의 목적을 미리 세움에 의해서이다」⁴⁰⁾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르트르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에 의해서만 사물의 역행율이 생긴다는 것이어서, 우리와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인 사물은 결코 그것이 자체로서는 우리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⁴¹⁾

그러나 일상적인 생각에서는,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계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될 것이고 더우기 이 세계는 내가 아직 부여하지 않은 의미를 나를 향해서 던져오는 것으로 조차 생각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사르트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사르트르는 우리의 구체적 상황을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실존의 세계층을 지적한다. 첫째, 「이미 의미를 가진 여러 가지 도구(역, 열차의 시각표, 예술 작품, 동원 포스타)」, 둘째는 「내가 이미 나의 것으로서 발견하는 의미(나의 국적, 나의 인종, 나의 신체적 외관)」, 그리고 셋째는 「이것들의 의미가 지시하는 귀추 중심으로서 타인」⁴²⁾. 이것들은 사물의 역행률에 대해서 인간적인 역행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적 역행률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타인의 존재에 의해서일 것이다. 즉 본래 나는 사물에 의미를 주는 존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가 이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인 하나의 세계에 구속되어 있고, 더구나 「이 세계는 내가 거기에 부여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나를 향해서 던져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⁴³⁾

하지만 사르트르는 여기서도 자유의 근원성을 한결같이 주장한다. 결국 인간적인 역행률이 나에게 대해서 나타나오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인 투기가 존재해야만 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표지나 지시기나 타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해서 그것들이 그것 자체만으로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하다는 것도 도구나 지시기나 타인의 눈초리가 의미를 갖는 것은 나의 투기에 의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황은 내가 자유로이 목적 선택을 하면서 세계에서 행동하는 나의 상황인 것이다. 자유가 주어진 것을 이 주어진 것으로서 나타내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향해 그것을 이미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세계의 상태는 나의 목적 선택에 따라 여러 다른 의미를 가진다. 더우기 이 <주어진 것>(현재의 세계의 상태)없이 자유로운 행동은 성립하지 아니한다」⁴⁴⁾ 대자존재는 일정한 주어진 것 즉 조건의 빛에서 비로소 자유이다. 상황이나 행동은 자기의 밖의 어떤 것에로의 작용이므로 무조건의 장애없는 자유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의 한계가 아니고, 오히려 자유는 이와 같은 세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조건에 대해서 자유이며, 그리고 대자가 주어진 상태를 넘어서 일정한 목적을 향해서 행동할 때 자유이다. 이것을 사르트르는 「자유가 도저히 한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40) idid.

41) idid. s. 611

42) idid. s. 644

43) idid. s. 645

44) idid. s. 657

자유가 결코 한계를 만나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⁴⁵⁾라고 서술하고 있다.

V. 結 論

이상에서 우리는 샤르트르가 해명한 행동의 존재론적 구조를 지향성에서 출발하여 행동의 동기·목적과의 관계, 대자의 행동·자유·상황에 관하여 선택의 자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샤르트르는 주체성의 성격을 두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는 행동의 주체요, 선택의 주체이다. 그리고 둘째는 책임의 주체이다. 실로 인간이 실존으로서 본질에 선행한다면, 자기 형성을 위해서는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하여 실천하는 주체적인 결단이 필연적으로 요청될 것이고, 자기의 행동을 주체적으로 선택한 이상 그 결과로 빚어지는 책임은 자기가 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인간 존재는 목적을 자유로이 선택함에 의해서 행동의 장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또 나를 둘러싸는 사실성을 판단의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동시에, 실존적 인간의 자유를 실천적 행동과 이론과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아 미래에로 기도해 가는 존재인 것이다. 목적을 선택한다는 것은 현재의 나 자신과 즉자존재를 부정하여 초월하는 자유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황-내-존재>인 것이다. 상황은 대자의 존재방식인 한에서 단순히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또 <주어진 것>에 관한 자유로운 행동이라는 의미에서는 단순히 주관적인 것도 아니다. 상황은 의식에 있어서의 인상의 총화나 통일이 아니고 세계와 대자와의 관계이다. 인간 존재가 자유로운 행동에 의해서 자기의 상황을 만들어가는 존재인 한에 있어서는 인간 존재는 세계와 자기의 현재의 상태에 대한 책임자이어야 하리라.

샤르트르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상황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에 앞서는 본질 속에 사회성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샤르트르가 상황을 중시한 것은 선택하는 자유에 따라서 나타나는 상황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였지 결코 선택하는 행동 그 자체 속에 사회적 연대성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샤르트르의 자유란 「사회에서 단절된 주체적인 자유를 말함이며 존재 이유를 상실하여 불안에 전율하는 고독한 혼의 자유이다」⁴⁶⁾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샤르트르 철학의 근본 목적은 본질주의를 부정하고, 실존주의를 채용하여, 실존적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실존적 인간의 자유란 실은 사회 연대성의 전제가 되는 주체적 자유였다. 즉 사회의 질서를 찾기에 앞서 자신의 질서를 찾아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샤르트르에 있어서 책임의 문제도, 우연적 세계 속에 던져진 자기 존재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형이상학적 책임-개인적 책임으로부터 일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 존재를 살아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실존적 책임-인간의 전적 책임으로 진행되어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비록

45) idid. s. 670

46) 소림이유, 「실존철학의 길」, 경도, 삼화서방, 1955, p. 231

그것이 어떤 나의 개인적 행동에 한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사건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밖에서부터 온 것일 수는 없기 때문에 가령 어떤 전쟁에 동원된다면, 이 전쟁은 어디까지나 나의 전쟁이다. 내가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 간에, 이 결정은 이미 하나의 자유로운 나의 행동이며 나는 자유로이 목적을 선택해서, 이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서 인수하고 있다⁴⁷⁾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인생에 있어서 나는 다만 나의 행동과 책임에 의해서 야기된 나의 상황 이외의 어떤 것에도 만나일 수 없다. 이들에 대한 나의 여러 행동의 선택은, 내가 이들을 넘어서 삶의 안에 있어서의 나의 목적을 추궁해 갈때 만엔 한에서 나타나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 존재는 언제나 자기 자신과 자기의 목적과 만나일 따름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인간은 거의 언제나 이 책임의 불안에서 벗어나와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기 기만은 타인의 눈초리에 의해서 자신의 주체를 망각해 가는 주체의 상실이며, -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면 퇴락이며- 대자존재의 구조에서는 나타날 수 없고 단지 대타 존재의 방식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것은 대자존재에 있어서는 자신의 행동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여 사르트르는 격렬히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사르트르가 말하는, 인간 존재에는 미리 주어진 아무런 근거나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하여 인간 존재는 존재의 책임자이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이 것은 어디까지나 논리적 요구일 뿐이지 행동의 문제는 아닐 것 같기도 하다. 이 점은 아마 사르트르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해한다면 수긍이 갈것 같기도 하다.

47) S. U. N. s. 698.

Zusammenfassung

Über die ontologische Struktur der Tätigkeit bei Sartre

Yang Yeong-Ung

In dieser Abhandlung wird die ontologische Struktur der Tätigkeit, ausgehend von der Diskussion über den Begriff der Intentionalität Inbesondere werden die Relation zwischen der Motivation der Tätigkeit und ihrem Ziel sowie die Freiheit und die Situation des Aürn-sich diskutiert.

Sartre zufolge gehören den Charakteristika der Subjektivität folgende zwei Thesen :

erstens, der Subjekt der Tätigkeit ist der Subjekt der Wahl.

zweitens, der Subjekt der Tätigkeit ist der Subjekt der Verantwortlichkeit.

Notwendigerweise ist aufgefordert, daß der Mensch selbst für Sekbst-Bildung seing Tätigkeit plant, wählt und sich zum Praktizieren entschließt, solange für den Menschen die Existenz dem Wensen vorangeht.

Überdies muß der Mensch selbst für das Resultat seiner Tätigkeit Verantwortung tragen, denn er hat selbständig seine Tätigkeit gewählt.

Der Mensch ist ein In- Situation- Sein, weil das Wählen eines Ziels gerade die Freiheit bedeutet, durch die der Mensch der Sich-Selbest und das An-Sich-Sein der Gegenwart verneint.

Das menschliche Wesen sollte derjenige sein, der die Verantwortund für die weit und seine gegenwärtige Situation trägt, sofern der Mensch durch seine freiwillige Tätigkeit seine eigene Situation schafft.